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

요1:1-5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이었다면 그것은 '과연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하는 성경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 20: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한계를 뛰어 넘으셨습니다.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죄와 율법의 모든 한계를 정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실체시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1. 창조주

“(요 1:1-3)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제2의 창조요 재창조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역사에서도 BC(Before Christ)와 AD(Anno Domini)로 갈라집니다.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 시대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즉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면 소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창조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는 크게 두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됩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의 Before와 After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엡 2:12-13)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기독교가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 기독교는 사람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의 권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제2의 재창조라면 제3의 재창조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교회는 반드시 변화의 역

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변화 되지 않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 입니까? 변화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분별', 곧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생각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물을 보면서도, 어떤 사건을 보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해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모든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할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생각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을 연관시키게 됩니다. **“(행 2: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각자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말씀과 삶이 연결이 되어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을 통해 말씀을 자신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신약시대 때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셔도 그들은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들어도 마음을 닫고 귀를 막아 버리면 자신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2. 하나님의 실체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영어성경에는 말씀을 'the Word'라고 표현합니다. 정관사를 붙이고 대문자를 사용해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염불이나 독백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원이 없습니다. 인간과 만물은 기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기원이 없습니다. 만약 신에게 기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신이 아닐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며 그 말씀은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본적이 없지만 누구든지 예수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예수그리스도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실체이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3. 생명의 빛

“(요1:4)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 복음에서 말하는 빛은 일반적인 빛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빛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영적인 빛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의 은혜를 받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라든지, ‘치료의 광선을 통해 몸이 치유되었다’ 등으로 표현됩니다. 영적인 빛은 변화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은 ‘밝음’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나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전기불 아래에서 책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빛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도 전기불로는 안됩니다. 생명을 자라게 하는 힘은 오직 태양빛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빛이란 전기불이 아닌, 바로 태양과 같은 빛을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빛, 자라게 하는 빛, 변화하게 하는 빛을 말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인생에 들어오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영혼은 반드시 소생합니다.

영국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유니우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백과사전에는 상당한 지면이 할애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는 17세기에 살았던 목사이자 탁월한 고전학자로 옥스포드대학 교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기독교백과사전에서 이름을 찾을 수 있었던 탁월한 목사였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아버지를 둔 유니우스도 젊은 시절에는 신앙까지도 포기해 버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늘 아들을 마음속에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기도중에 한가지 묘안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이 가끔 자기 서재에 들를 때면 늘 찾아가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신약성경을 가져다 놓기로 한것입니다. 어느날 아버지가 없을때 유니우스는 서재로 왔다가 동일한 장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새로운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무심코 그 책을 열게 되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이었습니다. “(요 1:1)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갑자기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미 대학에서 철학과 논리학을 배웠기 때문에 논증의 구조를 보는 예리한 눈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논증 구조는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이것 대단한데!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고, 군더더기 없이 핵심을 때리는 3단계 논증을 하고 있구나! 정말 대단해!” 자기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그는 내친김에 1장을 내리 읽어갔습니다. 그런데 읽어 갈수록 마음이 자꾸 이상해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또 그가 빛이라고,,,’ 그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 성경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가슴을 계속 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잘수 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견디다 못해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됨을 이제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체험을 계기로 유니우스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 옥스포드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내어놓고 빛을 받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 믿던 사람도 몇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무언가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과일은 지중해산이라고 합니다. 지중해산 과일이 좋은 이유는 땅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비료가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햇빛을 많이 쬐기 때문입니다. 햇빛이 없고 날씨가 흐리고 비가 많이 내리면 농작물도 도열병이라는든지 병충해에 걸립니다. 그러나 햇빛이 내리쬐면 병충해가 사라집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빛을 많이 받으면 건강해질수 있습니다. 빛되신 주님앞에 나아가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실체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매일 묵상하며 교제할 때,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것이며,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눔의 시간

1.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Before & After 를 한가지씩 나누어 주십시오.
2.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분별’하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별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자신과 연결될 때 가능해 집니다. 최근에 선포된 말씀이나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경험한 ‘찔림’이나 ‘깨달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3. 우리는 보통 ‘말씀을 본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다보면,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통해 ‘내 자신’을 보게 되는 ‘역전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실체와 만나면서, 어둠인 자신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돌아보시고, 말씀(빛)을 볼 때, 자신(어둠)의 실체를 보게 된 경험들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